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높을고창물, 먹거리 정기 배달서비스 시작

고창군 직영 온라인쇼핑몰(높을고창물)이 정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26일 고창군 높을고창물IT팀에 따르면 '높을고창물' 홈페이지 내 '높을고창물 구독' 메뉴를 만들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높을고창물 정기구독 서비스'는 지역의 특산물과 품질이 보증된 농수산물에 '꾸러미상품'과 '단독상품'으로 구성해 매주 또는 격주로 정기구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높을고창물은 ▲매주 필요한 농산물을 정기적, 안정적으로 공급받길 원하는 고객 ▲1인 가구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즐기는 고객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꾸준히 공급받아 건강을 유지하려는 고객 등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상품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연말 가족들에게 보내는 '고창의 밥상을 담은 새해선물세트'도 별도로 준비해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본격 '가동'

정읍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설(토목)·지 공무원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됐다.

설계단은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200여건 22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실시계획을 맡게 된다.

한발 앞선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한 재정 신속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시는 12월 말까지 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찾아가는 행복 장터'

정읍시-샘골농협, 1호점 운영... '이동형 마트 트럭' 마을 순회 복지서비스 제공

정읍시와 샘골농협이 도내 최초로 교통환경이 좋지 않은 시골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 장터' 1호점을 운영한다.



시와 샘골농협은 26일 정읍면 소재 샘골농협 광장에서 '찾아가는 행복 장터(이하 행복 장터)' 발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허수중 샘골농협 조합장, 행복 장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행복 장터'는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을 통해 이동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과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공헌을 위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3.5톤 트럭을 개조한 이동형 마트 트럭이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과 로컬 푸드를 판매하고, 공과금 수납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농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차량에 부착된 전광판을 통해 각종 교통·생활 정보는 물론, 지역의 대표축제와 관광자원, 코로나19 등의 재난 안전 대책 관련 대민 홍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교통이 불편해 장보기가 쉽지 않은 주민들과 농번기 비빔 농민들은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같은 품질의 생필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외식 업소 경영 컨설팅...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정읍시, 운영 노하우 등 전수

정읍시가 지역 내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외식업 경영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외식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외식 업소(브런치 카페) 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침체와 영업 부진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 내 음식 문화와 더불어 관광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경영 컨설팅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외식 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각 업소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사전진단·평가하는 등 초반부터 사업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젊게 변화



정읍시가 지역 내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하는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브런치 메뉴인 파니니 레시피를 개발해 전수했으며, 곁들이는 피클과 샐러드드레싱 또한 직접 만들어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1년 숲가꾸기 사업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숲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 평가는 전북 14개 시·군의 우수사례 발굴과 미흡 사례 개선을 통해 사업 품질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경쟁 수목과 덩굴류 제거의 적정성, 조림목 보육, 가지치기의 적정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700ha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고, 어린나무가

꾸기 110ha, 큰나무가꾸기 30ha, 산불 예방 숲가꾸기 50ha를 시행했다.

조림지 가꾸기는 최근 3년간 조림지를 대상으로 조림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덩굴제거, 풀베기를 시행한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5~15년 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큰나무가꾸기는 15년 이상 된 수목의 밀도 조절 등이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림을 침입수림에서 활엽수림화해 산불 확산을 막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예산 꼼꼼한 심사 각오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이 재대 부안군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7,000여원에 이르는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식 위원장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 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삭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 재량사업에 대해 집중심사 하겠다고 밝히며 대규모 사업은 차공을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어 심의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 사업예산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것이며 법적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사업, 산출근거 불일치 연내집행 불가사업, 선심성 예산 보조금 집행 부적격 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따져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예산심의의 정책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비지 방식의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분배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때 보다 더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북도청과 부안군청에서 근무하였던 공직자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반기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안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책을 맡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050명 모집

부안군은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통합 모집한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163명 늘어난 3,050명을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노노케어, 경로당방역관리원, 우리마을 가꾸기 등 3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 모집인원은 4개유형으로 공익활동형 2,610명(16개사업)으로 월 30시간 활동에 월27만원을 지급한다. 시장형 150명(3개사업)모집에 사업활동 수의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240명(13개사업)모집에 월60시간이상 활동으로 월70여만원이 지급되고, 취업알선형은 50명(1개사업)으로 취업 연계시 1인당 15만원 상당의 부대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만 60~65세 이상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를 비

롯한 13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외에도 온라인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ma.or.kr), 복지포(www.bokj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후 증명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을 고려해 고득점자순으로 수행기관별로 자체 선발하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 위축된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취업육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